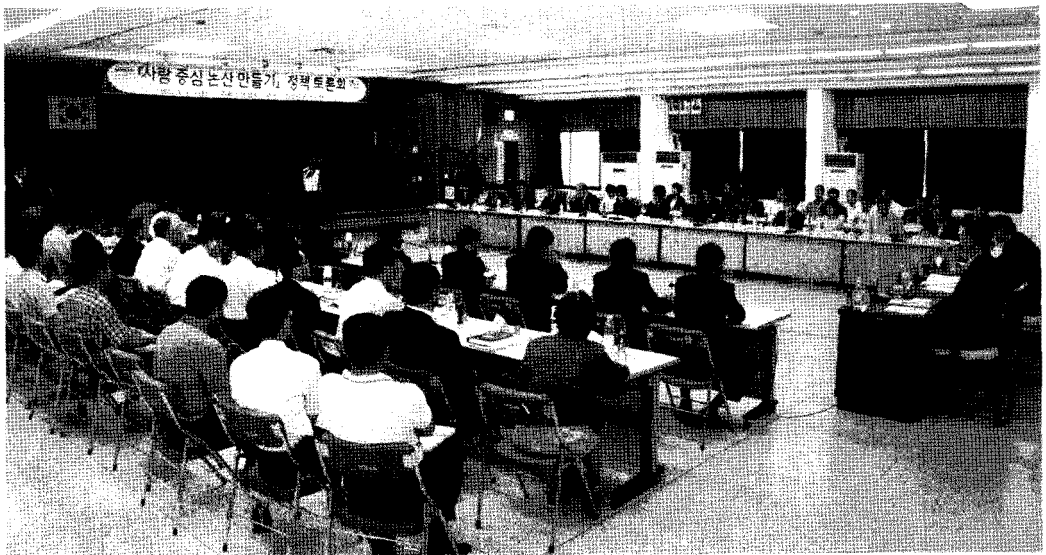


## 사람 중심 논산 만들기 위해 한 자리에

- 충청연, 시군 순회 워크숍 일환으로 소통의 장 마련



9월 17일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논산시(시장 황명선)와 공동으로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사람 중심 논산 만들기」라는 주제로 외부전문가 및 교수, 논산시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시청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건양대학교 임양빈 교수의 “사람중심 도시 실현을 위한 논산시의 과제와 주요 전략”, 한밭대학교 김명수 교수의 “친환경적인 견고 싶은 도시환경조성 활성화 방안”, 충남대학교 이정수 교수의 “디자인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충청연 박진도 원장 주제로 광주대학교 김향집 교수, 한밭대학교 임윤택 교수, 토지주택연구소 강명수 박사, 공주대학교 김경석 교수, 충청연 공공디자인센터장 이충훈 연구위원, 대전발전연구원 이형복 연구위원의 지정토론과 각 실·과·소장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시가지의 경관정비, 주차장 및 도심공원 확충, 자전거도로 설치, 차도보

다는 인도 중심의 도로를 설치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논산을 만들어 나갈 것”을 피력하였다.

또한 박진도 총발연원장은 “결국 사람 중심의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사람을 잘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모든 짐을 떠안으려 하지 말고, 주민·시민사회·기업 등을 어떻게 참여시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로드맵을 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략과 아이디어 등은 2011년도 논산의 시책구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충남발전연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학술지식정보 공동활용 협정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CDI)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소장 이남영, KSDC)는 8월 26일 오전 11시 충발연에서 양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 및 지식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충발연은 KSDC의 학술정보자료와 다양한 연구분석기능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고, 충발연의 축적된 연구성과물 중 공개 가능한 양적 자료(Raw Data, 설문지 등)를 KSDC에 기탁하여 영구 보존·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연구원이 실제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와 분석기능을 웹상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방대한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 양 기관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이번 협정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일본 혁신지자체의 지역발전전략 교훈 삼아야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제기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를 중심으로 한 '대전충남지역경제연구회'는 8월 3일 오후3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육근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그리고 지역경제연구회원과 충발연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일본 혁신지자체의 경험과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일본 지방자치 및 지역정책의 저명인사 2명을 초청, 일본 지자체의 경제정책과 정책결정 시스템, 그리고 주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다.

호보 타케히코(67·시마네대학) 명예교수는 "일본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바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있었지만, 고도경제성장정책에 따른 공해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복지는 오히려 소홀해졌다. "면서 특히 "지자체의 기업유치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세정책과 선행투자에 비해 그 기업의 이익이 본사로 흘러들어가거나 지역민의 고용 창출 비흡 등 지역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타지역으로부터 유치하는 기업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지역의 자생적 경제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지역의 각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체계적이고 신뢰성있는 지역발전정책의 이행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케가미 히로미치(68·타마지자체 문제연구소) 소장은 “일본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는 지역민의 의사와 책임에 입각한 ‘주민자치’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단체자치’에 있지만, 중앙정부에 의한 지자체의 통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라면서 “일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직접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단체장과 지역민과의 대화, 편지·투고, 전문가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주민참여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행정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는 모든 지역민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알리는 방법 또한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지역민 또한 지역의 주인 의식을 높이고 학습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상호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취임



충남발전연구원은 8월 2일 오전11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7대 박진도 원장(57)의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는 충발연 정동기 사무처장, 이인배 연구실장을 비롯한 전 직원과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신임 박 원장은 “민선5기 충청남도 도정의 목표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

기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충남발전연구원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온 정성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임 박 원장은 1952년 강원도 삼척 출생으로 30여년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동경대 객원연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류교수, 영국 뉴캐슬대학 초빙교수 등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와 대통령자문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발전 및 농어업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능력과 업적을 남겼다.

이외에도 지역재단 상임이사, 한국농업정책학회장, 한국사회경제학회장,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다양한 대외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박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 국가 GIS 사업에 따른 충남 시·군의 대응방안 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은 7월 1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가 GIS 정책에 따른 충남 시·군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 3차원 GIS(지리정보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GIS 사업과 연계한 충남 시·군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남도 지적과 김덕만 지리정보담당은 “충청남도는 도민 서비스 질 향상 및 U-충남 실현을 위한 지리정보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3차원 GIS 시스템을 지난해 말까지 구축했으나, “시스템의 대중화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연구원 신동빈 연구위원은 “국가 GIS 사업은 GIS 기반조성을 위한 데이터 구축, 확산, 연계통합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4조 4,057억원을 투입하여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추진”중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이나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육진아 GIS팀장도 “지자체 간 GIS 정보 공유와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표준화 및 관련 규정의 미비로 통합적 3차원 GIS 구축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는 GIS 구축에 대한 동향과 기술개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도 높은 3차원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유비쿼터스 및 스마트폰 환경에 대응한 모바일과 웹 기반 쌍방향 서비스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책임연구원은 “지자체는 3차원 GIS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차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충남에서는 도와 시군 간의 효율적 연계방안 마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3차원 GIS 시스템 운영 정보화 트렌드에 맞춘 3차원 모바일 서비스 개발 GIS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등을 강조했다.

